

◆ 재속 프란치스코 오렌지 카운티 형제회 ◆ St. Francis Fraternity at Anaheim ◆



평화의 도구

(제 160 호)

06년 12월

*영적보조자 : 이 규성(바오로),sfo (714)537-1974
 *회 장 : 이 병재(힐라리오),sfo (714)879-8679
 *부회장 : 오 수원(바오로), sfo (714)998-2898
 *서 기 : 유 근숙(율리아),sfo (714)572-3035
 *회 계 : 박 용원(야고보),sfo (562)924-5840
 *양 성 : 박 영철(요한),sfo (562)867-5499
 *시도직 : 이 용석(안토니오),sfo (714)229-0914

▶월례회: 매월 4째 일요일 오후 12:30분 ▶장소: 성 토마스 성당 412 N. Crescent Way Anaheim, CA 92801

E-MAIL

*김 용철(도미니꼬)신부: kycofm@hanmail.net
 *이 규성(바 오 로): paullee92840@yahoo.com
 *이 현일(어거스틴): bonumsfo@yahoo.com
 *유 근숙(율 리 아): juliayoo@sbcglobal.net
 *이 세홍(바 오 로): paulsaelee@yahoo.com

*박 영철(요 한): johnparksfo@yahoo.co.kr
 *박 용원(야 고 보): jwypark@yahoo.com
 *박 영환(빅토리노): ypark98@yahoo.com
 *이 용석(안토니오): ysleesfo@yahoo.com
 *백 호명(프란치스코): frankb655@yahoo.co.kr

형제회 소식

■ 07년 1월 월례회 변경

성 토마스 본당에서는 오는 1월 27(토), 28일 (일) 전 신자를 대상으로 정 신부님 피정 강의가 있어서 부득히 월례회를 오는 1월 14일(일) 오후 1시 (정소 6호실)로 변경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가톨릭 워커 봉사

지난 12월 3(일) -산타아나 가톨릭 워커에서 무숙자들을 위하여 형제회 및 평화의 모후 단원과 함께 불고기 한국 음식을 봉사하였습니다.

■ WM 성녀 글라라 형제회 설립식

Establishment Ceremony of
 St. Clara Fraternity at Westminster

지난 12월 10일(일) 오후 2시 순교자 성당에서 성녀 글라라 형제회가 설립식을 하였습니다. Fr. Christian Mondor 께서 주례를 해 주셨고 지구 형제회장단 및 각 형제회에서 참석하였습니다.

성녀 글라라 형제회는 모체 형제회인 성 프란치스코 형제회(OC 형제회)에서 2005년 4월 25일 분가 승인하고 2005년 5월 완전 분가하여 2005년 6월 2째주 부터 성 보나벤뚜라 형제회로 출발하였으나 지구 형제회에서 비활동 형제회(Re-Activite)인 성녀 글라라 형제회로 변경하고 12월 10일 단위 형제회로 설립함.

평의회원 :

-영적보조 : 박 승호(바오로)
 -회 장 : 홍 기선(막달레나)
 -부회장 : 이 중호(마태오)
 -서 기 : 임 순연(율리안나)
 -회 계 : 김 문주(카타리나)
 -양 성 : 김 선장(말가리다)

■ 연말 정산

이해가 저물어 갑니다. 형제회 연말 회계 정산을 위하여 그동안 회비를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해를 잘 정리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회원 소개-2번째】

나는 누구 일까요 ?

나는 50대 초반 입니다. 형제회를 처음 시작할 당시 성령기도회 피정에서 성령을 체험하면서 "회개하는 형제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1991년에 형제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성격은 다소 내성적이지만 외향적으로 표현하기를 아주 좋아하고 누구나 친구하기를 좋아 하며 특기는 음악, 운동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에 대하여 좋아하는 점은 자신이 낮아지려는 작은자가 되는 것, 평등함 그리고 자연을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는 영성입니다.

형제회에 대해 좋아하는 점은 성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신앙의 삶을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회에 대해 바라는 점은 한달에 한번씩 만나는 모임이 항상 그리워지고 또 기다려 지는 모임이 될 수 있는 형제회가 되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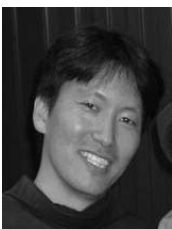
【러시아 선교】

러시아 에서는...

김 웅철(도미니교) 신부

T 평화와 선

* 아르센예프 성당의 축성식*



2006년 11월 11일 아르센예프 성당의 축성식이 있었다. 성 요셉 교구의 키릴 주교님과 지역의 사제들 11명이 함께 공동 집전하면서, 성당의 완공과 함께 기쁨의 축성식이 연해주와 아르센예프 성당에서 거행되었다.

공사 기간은 약 2년이 걸리는 시간이었지만, 오랜 숙원이던 작은 성당이 건립되었기에 모두 신자들이 함께 기쁨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공사에 가장 많이 수고한 존 신부(미국의 산타 바바라 관구)와 본당의 회장인 레샤와 모든 신자들의 사랑과 열정 그리고 노고 끝에 아름다운 성당이 완공되었다.

이 성당에서 많은 이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곳이 되기를 함께 기도한다.

* 첫번째 견진 성사 *

2006년 11월 12일은 우수리스크의 [그리스도 탄생 성당]의 첫번째 견진 성사가 베풀어진 날이다. 약 일년동안 미사 후에 교리 공부를 하면서 준비했던 신자들의 뜻 깊은 견진성사를 받는 날이었다.

키릴 주교님의 미사 집전과 견진 성사로 이제 우수리스크에서는 세례와 견진, 그리고 혼배와 장례 미사가 이루어진 성당이 되었다. 그리 많지 않은 신자들이기에 가장 큰 어려움은 견진 대부와 대모를 선정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 7명의 견진자들이 나왔기에, 앞으로 이들의 모범적인 생활로 세례 성사때마다 좋은 대부모의 역할을 해 주기를 주님께 기도한다.
우수리스크에서

【영 성】

태양의 노래

시대적 배경

프란치스코의 전기작가들은 이 노래를 “피조물의 노래”, “태양의 노래”, “주님의 찬가”, “자매인 죽음의 찬가” 라고 부르고 있다. 이 4가지의 내용이 이 글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 송가는 3시기를 거쳐 3단계로 기술되었다. 첫 부분인 1절에서 9절까지는 프란치스코가 피조물을 꿰고 난 다음 새로운 눈으로 피조물을 보면서 노래한 것이다(피조물의 노래). 그리고 둘째 부분인 10절과 11절은 주교와 아씨시 시장과의 불화 중에 프란치스코가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노래한 것이다(용서의 노래). 셋째 부분인 12절부터 14절까지는 프란치스코가 죽음을 앞두고 첨가하였다(죽음의 찬가). 첫 부분과 둘째 부분은 1225년에 작성하였고, 마지막 부분은 1226년 작성하였다. 프란치스코의 친저성(親著性)에 대한 의심은 없다.

이 찬가는 그리스도교 문학에 있어서 중요한 걸작 중의 하나이며 프란치스코가 옛 이태리어로 쓴 작품 중에 남은 유일한 작품이다. 이 찬가는 이태리 문학의 초기 작품이다.

내용

이 찬가는 매우 아름답고 낙천적인 노래로서 전 인류를 향하는 사랑의 교향곡의 공명관(共鳴管)이다. 성인이 모든 피조물들을 하느님 찬미에로 초대하는 것은 피조물들이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따라서 하느님의 위대하심과 사랑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인은 태양, 달, 별, 바람, 물, 불, 땅 등을 불러 주님을 찬미하도록 초대하고 있다.

첫째, 이 찬가는 피조물을 통하여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의 송가이다.

둘째, 이 찬가는 모든 피조물들을 지극히 높으신 분께만 속하도록 하는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종속관계의 한 표현으로서 지극히 높으신 분께 대한 하나의 초월적인 찬가이다.

셋째, 이 노래에서 프란치스코는 모든 피조물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우주 전체가 한 형제애 안에서 가족을 이루어 하느님을 찬미케 하는 노래이다.

넷째, 이 찬가는 프란치스코로 하여금 자기

고독과 자기 연민에서 탈피하도록 해 주는 경탄할 만한 노래이다. 프란치스코는 잃어버린 낙원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새 세상에서 찾아내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이 찬가 안에 표현되어 있는 형제애는 외적인 피조물들을 통하여 묘사되었지만, 실은 영혼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상호간의 사랑을 상징화 하여 표현한 것이다.

여섯째, 하느님께로의 상승은 적막한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친교에로 들어가게 하는 것임을 이 찬가에서 느낄 수 있다.

일곱째, 인간이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분의 피조물인 인간들 사이에 화해와 친교가 먼저 요구됨을 이 찬가에서 절감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모든 피조물을 향하는 이 사랑의 교향곡 안에 자연을 사랑하는 프란치스코의 애정이 담겨져 있고, 또 모든 이가 두려워하는 죽음조차도 자매로 보고 있는 프란치스코의 초월적인 영성이 이 교향곡 안에 담겨져 있다.

☞ 회원 소개-이 세홍(바오로)

【독상 1】

삶의 지혜를 주는 명언들...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들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대개 닫힌 문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우리를 향해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

< 헬렌 켈러 >

'노(no)'를 거꾸로 쓰면 전진을 의미하는 '온(on)'이 된다.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문제를 푸는 열쇠가 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찾아 내어라. < 노먼 빈센트 필 >

희망이 도망치더라도 용기를 놓쳐서는 안된다.
희망은 때때로 우리를 속이지만, 용기는 힘의
입김이기 때문이다. < 부테루웨그 >

인생에는 진짜로 여겨지는 가짜 다이아몬드가
수없이 많고, 반대로 알아주지 않는 진짜 다이
아몬드 역시 수없이 많다.< 타저 제이 >

당신만이 느끼고 있지 못할 뿐.... 당신은 매우
특별한 사람입니다. < 데스몬드 투투 >

내가 만일 인생을 사랑한다면,
인생 또한 사랑을 되돌려 준다는 것을 알았습니
다. < 루빈시타인 >

삶이란 우리의 인생 앞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 존 호머 밀스 >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 과업 중에 가장 어려운 마지막 시
험이다. 다른 모든 것은 그 준비 작업에 불과하
다.< 마리아 릴케 >

진정 우리가 미워해야 할 사람이 이 세상에 혼
한 것은 아니다. 원수는 맞은편에 있는 것이 아
니라 정작 내 마음속에 있을 때가 더 많기 때문
이다.< 알랭 >

희망은 잠자고 있지 않는 인간의 꿈이다.
인간의 꿈이 있는 한, 이 세상은 도전해 볼만하
다.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꿈을 잃지 말자, 꿈을
꾸자.꿈은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에겐 선물로
주어진다.< 아리스토 텔레스 >

'오늘'이란 너무 평범한 날인 동시에
과거와 미래를 잇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 괴테 >

행복은 깊이 느낄 줄 알고, 단순하고 자유롭게
생각할 줄 알고 삶에 도전할 줄 알고 남에게 필
요한 삶이 될 줄 아는 능력으로부터 나옵니다.
< 스톰 제임슨 >

[묵상 2]

미움의 안경과 사랑의 안경

미움의 안경을 쓰고 보면
똑똑한 사람은 잘 난 체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착한 사람은 어수룩한 사람으로 보이고
얌전한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활력있는 사람은 까부는 사람으로 보이고
잘 웃는 사람은 실없는 사람으로 보이고
예의 바른 사람은 얄미운 사람으로 보이고
듬직한 사람은 미련하게 보이니

사랑의 안경을 쓰고 보면
잘난체 하는 사람은 참 똑똑해 보이고
어리숙한 사람은 참 착해 보이고
소극적인 사람들도 참 양전하게 보이고
까부는 사람도 참 활기 있어 보이고
실없는 사람도 참 밝아 보이고
얄미운 사람도 참 씩씩해 보이고
미련한 사람도 참 든든하게 보인답니다.
이는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사랑의 대상
이 될 수 있고 미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5-3=2, 2+2=4라는 등식을 아십니까?
오해 할 때 세 발만 물리시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와 이해가
만나면 사랑이 됩니다..

MERRY CHRISTMAS
HAPPY NEW YEAR